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7월 21일(제13회)과 8월 11일(제14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회

•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침체와 정부차원의 건축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 유보 또는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창립30주년기념 행사는 정기총회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함.

제14회

• 창립30주년기념 행사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3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석대상, 주요행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 및 30주년기념 행사 위원장에게 위임 추진토록 함.

• 몽고 및 일본건축사 초청 계획(안) 승인의 건

-1985년 3월 체결된 한·일건축사 교류각서에 의거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상호친선 도모를 위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 또는 초청 등의 형식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건축사회 연합회회장단 4인과 한·몽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몽고건축사협회 회장단 8인을 오는 10월 24일 제30회 정기총회에 초청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가급적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함.

• 제30회 정기총회 개최일정에 대한 협의

-오는 10월 24일(화) 오전 10시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함.

• 건설제도 개혁 기획(안)에 대한 협의

-기존 대책위원회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임원은 수시로 조언토록함.

• 삼풍사고 대책처리에 대한 협의

-삼풍백화점 사고 특별점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고한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 '95한국건축문화대상 부문별 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

-회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강봉진 전임회장 저술 "한국건축사대요"발간 요청에 대한 협의

-우선 편찬위원회에서 협회에서 발간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위임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우리 협회, 설계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우리협회는 지난달 삼풍사고 이후 건설교통부가 건설제도 전반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건설제도 개선기획단(단장 유상렬 건설교통부차관)에 설계감리분야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회가 제안한 제도개선 추진과제는 표준계약서 및 세부기술기준, 건축관련 법령의 통·폐합 정비,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정립, PQ 및 입찰제도 확대에 관한 건, 중·단기 고급기술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이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표준계약서 및 세부기술 기준의 경우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또 현행 건축법도 법령체계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아니라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는 건축행정공무원이 설계도서를 검토하기보다는 설계자가 건축법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했는지의 여부만을 가려서 허가를 내주는 역할로 규정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종심의 등도 건축법안에 있는 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별도 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기존 건축관련법령이 지나치게 다원화(약 80여종류의 각종법령)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부서마저 제각각이어서 건축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건축관련법령을 통·폐합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행 건축·건축사법에서는 설계감리의 업무와 개념정립이 불분명하게 돼있어 시공업체와 설계자간 책임한도 및 역할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범위의 확실한 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설계발주에 있어 PQ적용 및 입찰제도 확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설계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재고해 줄것을 제안했다. 건축설계의 경우 시공분야와 달리 기술자보유, 재정상태, 경험 등이 풍부하다고 해서 꼭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때문에 이같은 입찰제도의 확대방침은 오히려 대형설계업체에 대해 물량 편중은 물론, 중소업체 및 신인건축사들의 참신한 역량 발굴 및 발전기회를 봉쇄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 종합화 방안에 대해 협회는 설계와 시공의 경우 현행대로 분명하게 업역분리가 이뤄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장단기 기술인력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건축대학의 별도 설립 등을 통한 국가적 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있게 대처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건설제도 개선기획단은 업계·학계·건설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아서 오는 10월까지 과제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접수 마감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95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접수가 지난 8월 18일에 마감되었다. 건축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예년에 비해 많은 작품들이 접수된 이번 행사에는 준공건축물의 경우 총 77점이 접수되었으며,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한 신인부문과 각 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부분은 각각 16점, 179점이 접수되었다. 한편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는 작품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계획건축물 부문과 준공건축물 부문의 심사를 2차에 걸쳐 심사, 최종결과를 오는 10월 13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6일(월) 서울시립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거행되며, 전시회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동일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95건축사자격(면허) 2차 시험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3일(일) 서울고, 선린중·상고에서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특별전형 포함)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2차 건축사자격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동안 건축계획, 오후 12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3백60분동안 건축설계가 각각 실시되었으며, 주관식 30% 객관식 70%로 치러졌다. 한편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3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발표된다.

서울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제3기 개강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일반시민 및 건축관련인에게 건축과 관련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제공,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실 건축물 방지 및 건축문화발전을 목적으로한 시민건축대학 제3기를 개설한다. 이번 제3기 시민건축대학 개강은 협회 대강당에서 오는 9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풍수지리, 건축법규(질의응답), 건축설비, 전기 및 시공, 우리건축에 대한 이해, 외국건축에 대한 이해, 기타 건축행정업무 등이고, 교재와 수강료는 무료이다.

개정 건축사법시행령 이달초 확정공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건축사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달초에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될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구분, 건축사자격시험, 설계도서의 사후신고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건축사법에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구분과 확보해야 할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규정한 항목을 삭제했으며, 아울러 사무실 면적 등의 등록기준, 설계·공사감리 수주에 따른 규모제한, 지정해야 할 책임건축사의 수 등도 폐지됐다.

건축사 시험의 경우도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예비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은 건축설계(2백점), 건축법규(1백점)으로 개정되며 건축사 예비시험은 건축구조(1백점), 건축시공(1백점), 건축계획(1백점)으로 바뀐다. 또 건축사보 신고수리, 건축사 시험시행,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가 맡도록 했다.

또한 설계도서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건축허가 신청후 7일이내에 신고토록 사후 신고제로 바꿨다.

일 시	강 좌	내 용	강 사
9월 18일	1강좌	건축물의 안전관리	장동찬(종합건축 신세기대표)
9월 25일	2강좌	풍수지리	박시익(도봉건축대표)
10월 2일	3강좌	건축설비(에너지관계)	이정기(에너지관리공단 기획과장)
10월 9일	4강좌	주거론	김인철(종합건축 인제대표)
10월 16일	5강좌	건축실내장식	함정도(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교수)
10월 30일	6강좌	건축조경(실내외)	김유일(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11월 6일	7강좌	건축법규	윤혁경(서울시청 도시경관과 계장)
11월 13일	8강좌	건축시공	장양순(종합건축 동명대표)
11월 20일	9강좌	외국건축에 대한 이해(주거위주)	이정근(종합건축 우리계획대표)
11월 27일	10강좌	우리건축에 대한 이해(주거위주)	장순용(삼성건축 대표)

이번 개정령 및 규칙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개정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부산건축사회, 건축사 법인 전환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 건축사회(회장 박성길)은 지난 7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건축사회관 12층에서 건축사 법인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건축사회 박성길 회장외 회원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선진 합동 회계사무소(서울) 황용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건축사의 법인전환 절차 및 건축법인의 세무, 부동산 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요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회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일본 하마마쓰 지부 건축사방문단, 우리협회 방문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 가또 히데야키 지부장외 19인이 지난 7월 27일 우리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올해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와 대전광역시 건축사회간의 건축문화 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했으며, 우리협회 박경환부회장 및 서울건축사회 이의구 회장은 이들 방문단을 맞이하여 양국 상호관심사에 관해 환담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일 양국간 건축문화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대전건축사회, 한·일교류 10주년 기념 행사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성희)는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와 건축문화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일교류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는 하마마쓰지부 가또 지부장외 26명 방문단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악공연, 공식회의 및 대전 EXPO관람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일 건축문화교류에 공헌한 김지태(우리협회 14대 회장), 유근렬(충남 8,9대 지부장), 고 민영기(충남지부 10대 지부장) 회원, 가에꼬 게이지(하마마쓰지부 전지부장), 가또 히데야끼(하마마쓰 지부장)에게 각각 기념패가 전달되었다.

제2회 한·일여성건축가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화련)는 오는 9월 30일(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2회 한·일여성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세기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신주거문화, 여성이 주역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지난 1994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주택, 가족,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심포지엄에 이어 두번째이다.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 지 순(간삼대표)/여자와 함께 변해 온 주택
김진애(서울포럼 대표)/바뀌는 여자, 바뀌어야 할 주택
조성룡(우원건축 대표)/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집을 실험한다.
일본측 2명 -中原暘子등

토론자 :좌 장/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병담(현대산업 개발 부사장)
임창복(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석철회원, '95부산건축전 개최

서울건축사회 김석철 회원(아키반 대표)이 부산 가람갤러리에서 한국건축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축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석철회원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제주도 영화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프로젝트 위주로 30여작품이 전시되었고, 이어 지난 7월 29일에는 개막전시회 리셉션에 이어 21세기 도시에서의 건축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도 열렸다.

현실 비평연구소,공개좌담회 개최

현실비평 연구소는 오는 9월 30일(토) 오후 2시에 종로구 소재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작가정신, 무엇이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좌담회를 개최한다. 현실작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작가정신의 정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개좌담회에는 김병윤(메타건축)소장의 사회로 김개천(이도건축), 김억중(하남대교수), 김홍일(WITH건축), 백문기(인토건축), 이정호(대구대교수), 이종상(이데아건축)소장이 참가한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일 오후 1시 40분까지 입실하여야 되며, 행사준비관계상 1시 45분에는 행사장 문을 폐쇄한다고 한다.

서울건축학교, '95워크숍3 개최

정규과정 시행에 앞서 일련의 실험과정으로 심도깊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학교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95워크숍3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전통건축의 해체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이번 행사에는 특히 Alejandro Zaera Polo(영국, 요꼬하마 국제여객선 터미널 국제건축 설계 경기 당선자)가 초대되어 강연회도 진행된다. 강연일정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8월 22일(화) 오후 7시/한국의 고지도에서 발견되는 건축정신 (최종현-우리공간문화연구소)
8월 24일(목) 오후 7시/우리의 리얼리티, 창작극의 현장(정한룡-연우무대 대표)
8월 25일(금) 오후 7시/제3세계 건축에서 전통의 의미와 실천 (김광현-서울대 건축과)
8월 28일(월) 오후 7시/한국 전통음악의 해체와 현대적 재구성 (백대웅-중앙대 한국음악과)
8월 31일(목) 오후 7시/건축에서의 동양과서양의 만남 (Alejandro Zaera Polo-영국건축가)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 건축전 개최

국내 최초로 건축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대 서대문 캠퍼스에서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 건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은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에 참가하고 있는 건축과학생, 설계사무소 직원 등이 한강변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Water Fron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40여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건축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8월 16~17일 양일간에 걸쳐 4명의 비평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작품에 대하여 공개 건축비평 시간도 가졌다.

강건희 교수 Total Design전 개최

홍익대 건축학과 건축계획 연구실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역 문화관 전시실(옛 그릴식당)에서 '강건희 교수 Total Design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30여년간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건축학회 작품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제자들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주택전시관, 올림픽 펜싱경기장, 백마고지 전적기념비 등 강건희교수가 30여년간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한 건축·도시설계, 조경, 공원계획, 조형물 등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성균관대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오는 9월 2일(토)부터 9월 6일(수)까지 서울역 문화관 제1전시실에서 95년도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95년도 성균건축전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갈고 닦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될 뿐만아니라 선배 건축사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동해시 여성회관 현상설계 공모

동해시에서는 여성문화교육시설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공모한다. 대지규모가 8,855㎡, 건물규모 85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질 이번 동해시 여성회관 현상설계 공모에는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서 1부, 사무소등록증 사본1부, 대표자사용인감계 1부를 가지고 신청접수를 하여야하며, 작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당선작 발표는 오는 10월중 예정이며, 당선작 1점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 2점에는 상금 2천만원, 가작 1점에는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가정복지과 전화 0394-30-2342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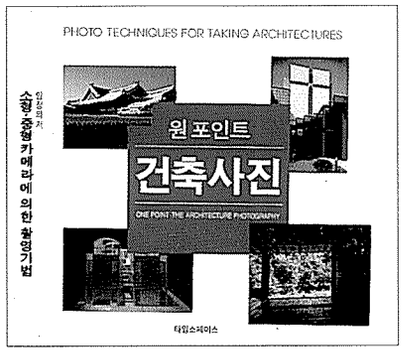
제4회 서울시 조경상 작품 공모 공고

서울시는 도시조경 수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4회 서울시 조경상 작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서울시 조경상은 지난 90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시공완료된 옥외조경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 22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7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금상1점에는 상금 2백만원 및 상장, 은상 2점에는 상금 각 1백만원 및 상장, 동상 3점에는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지과 전화 750-8595로 문의하면 된다.

임정의, 건축 사진전 개최

20여년간 건축 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어온 건축사진작가 임정의씨가 '세계건축 100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충무로 후지포토 살롱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작가가 유럽, 미국, 일본, 남미 등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300여점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사진으로 조명한 것으로서 건축사진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건축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원 포인트 건축사진」 발간



도서출판 타임스페이스는 건축사진의 촬영기법서인 「원 포인트 건축사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원 포인트 건축사진」은 다년간 건축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어온 건축사진 작가 임정의씨가 환경과 도시, 산업시설,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 현대와 고대건축,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 등 사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제반조건과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 및 촬영기법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실례를 싣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건축사진 촬영기법 이외에도 모형사진과 투시도, 몽타주, 지명원과 포트폴리오 제작 등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담겨져 있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연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는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노만 포스터(영, 건축가)를 초청하여 그의 건축 및 건축세계에 관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며, 또한 오는 9월 27일(수), 10월 25일(수) 오후3시부터 문예진흥공단 강당에서 조성렬(큐빅디자인), 오기수(환경스페이스 5)씨가 참석한 가운데 '95건축가 포럼을 개최한다.

제2회 건축 CAD학생작품 공모전 개최

(주)건축캐드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CAD/C.G로 이용하여 Presentation하는 것을 주제로 제2회 건축캐드학생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내외 대학(대학원), 전문대학의 건축과 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는 미발표된 창의적 작품이어야 하고 작품마감일은 오는 9월 18일(월) 까지이다.

한편 오는 10월 4일(수) 발표되는 당선작 1팀에게는 상금2백만원 및 부상, 최우수상 1팀에게는 상금 1백만원 및 부상, 우수상 2팀에게는 상금 50만원 및 부상이 각각 수여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건축캐드기술연구소 전화 598-1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 · 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 안내

우리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한 노후 · 불량주택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1987년 본 사업 추진이래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기술축적을 이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노후 · 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사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서비스내용

- ㅇ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진단비용 절감
- ㅇ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ㅇ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봉사(30일이내 완료)
- ㅇ 의뢰일로부터 2일이내 현장 출장, 진단의 필요성 유무 조사, 판단

노후 · 불량 주택의 범위

- ㅇ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ㅇ 건축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 — 토지 이용도에 따른 경제성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ㅇ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합,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ㅇ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내의 주택

문의 : 기술부 (02)581-5711~4, FAX.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재건축위원회